

BI-BLE

vol.10

Tech bulletin

2023 January



베링거인겔하임 BI-BLE +



BI-BLE 뉴스피드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BI-BLE



Boehringer
Ingelheim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 5가,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대표전화: 1811-7227

*BI-BLE*은 수의사를 위한 학술 정보지입니다.

PET-BRO-ALL-2212



고양이 관절염 발생을,
개보다 높을까요?

올해도 “관절염” 안녕
캠페인을 소개합니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고양이 관절염'에 대하여
고양이수의사회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고양이 관절염'
좋은 치료방법은?



Boehringer
Ingelheim



Editorial

베링거인겔하임 반려동물 사업팀에서는 한국 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올해도안녕”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이벤트로 고양이 보호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고양이수의사회 원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졌던 잘못된 상식과 생각들을 수의사 원장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관절염이라는 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능했고 나아가 나아가 든 고양이들의 병원 재방문과 건강검진 등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은 앞으로도 이렇게 고양이 보호자의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올해도안녕” 캠페인을 진행하고 원장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I-BLE

2022 Vol. 09

Editor in chief

Nahyun Kim 김나현 수의사

Editorial Committee

Soonjoo Kim 김순주 수의사

Pilgyu Yoon 윤필규 수의사

Sujin Kim 김수진 수의사

Special Thanks to

All BIAH members

Contents

고양이 관절염 발생률, 개보다 높을까요? 01

올해도 “관절염” 안녕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04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고양이 관절염'에 대하여
고양이수의사회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08

- 24시 넬 동물의료센터 엄태흠 원장님
- 잠실 ON 동물의료센터 최혜현 원장님
- 조이고양이병원x조이강아지병원 박지희 수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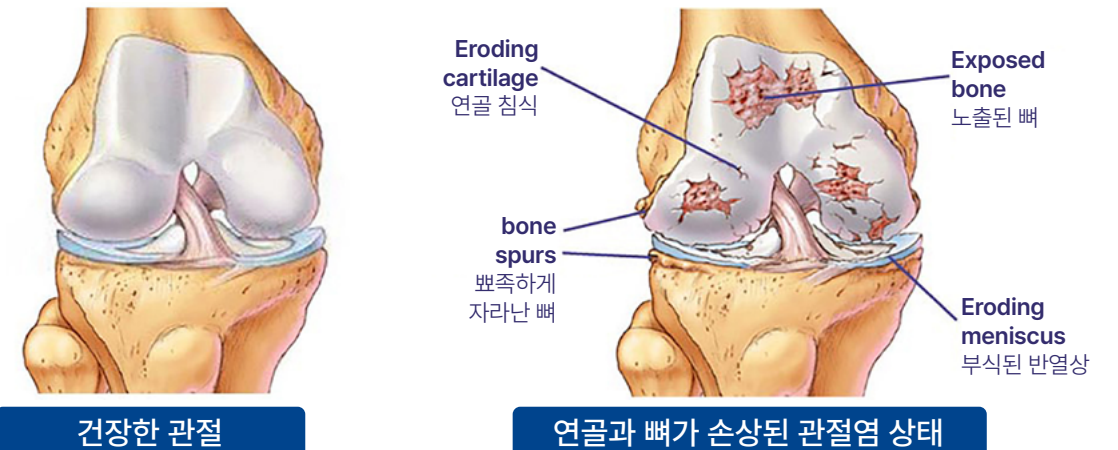
'고양이 관절염' 좋은 치료방법은?
논문으로 확인하는 메타컴의 효과 11

- 수술 전 후 메타컴®(멜록시카ם) 효능
- 고양이 OHE 수술 후 메타컴 사용
- 메타컴의 고양이 관절염에 관한 장기사용의 효과 및 안전성, 기호도 평가

고양이 관절염 발생률, 개보다 높을까요?

고양이 관절염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서서히 손상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생기는 원인과 부위에 따라 상세 병명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절염**(Osteoarthritis) 혹은 **DJD** (Degenerative Joint Disease)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절염 발생률

고양이가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면 방광염이나 신장 쪽의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혹은 구내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관절염 발생률은 반려견의 관절염 발생 비율보다도 높고**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40~90%**로 다른 질병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고양이의 관절염 발생에 관한 연구는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래 표에서 본 것처럼 꽤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진행된 연구¹에서는 병원에 내원 중인 고양이 100마리의 방사선 결과를 평가했는데, **61%**의 고양이가 최소 한 관절에 **48%**는 둘 이상의 관절염의 징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020년에 진행된 연구²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101마리**의 고양이들 중 **74%**가 방사선 사진으로 관절염의 징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은 관절염이 고양이에게 매우 흔하고, 우리가 고양이의 관절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 유연하고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고양이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흔히들 고양이가 잘 걸리는 질병은 방광염이나 신장병, 바이러스성 질병은 혹은 구내염을 생각했는데요, 고양이의 관절염 발생률은 다른 질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또한 강아지의 관절염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관절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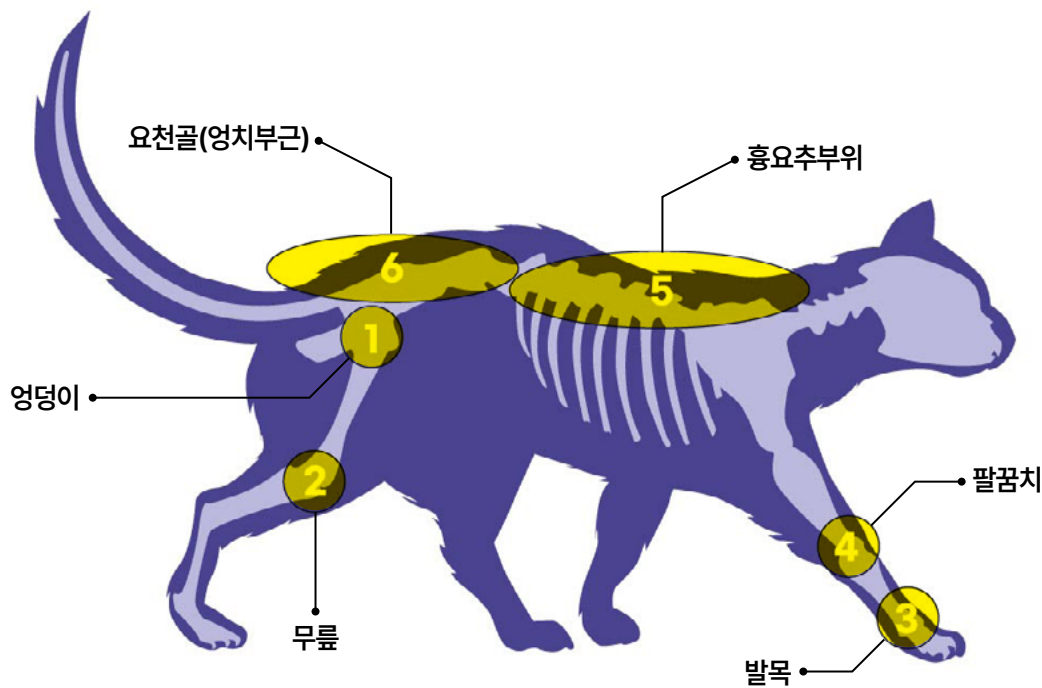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과체중이나 관절에 가해진 외부 충격들도 관절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고양이에게 관절염을 일으키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관절염의 위험도가 높은 품종으로는 **히말라얀, 페르시안, 메인쿤, 스코티시폴드** 품종이 다른 종보다 관절염의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³

관절염 증상

사람이나 혹은 강아지처럼 절뚝거리는 등의 누가 보아도 명백한 관절염의 모습을 보인다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고양이는 자신의 질병과 통증을 숨기는데 익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고양이 관절염 호발부위



고양이 관절염 예방과 관리

우선 **고양이의 행동에 변화가 보인다면 동물병원에 찾아가 수의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절염으로 진단받는다면 나이나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맞는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고양이의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⁴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를,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설치해 줍니다.	고양이가 선호하는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를 만들어 줍니다.	화장실 역시 들어가기 편하도록 입구의 턱이 낮은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물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놓아줍니다.		발톱 관리를 스스로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발톱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평소 점프를 하거나 착지를 하는 곳에는 발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카펫을 놓아주어 관절에 부담을 줄여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비만은 관절염을 악화시키므로,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정량으로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Omega-3 fatty acids와 관절의 연골의 구성요소인 Glucosamine/chondroitin 조합, 이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푸른입 혼합 제품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선호하는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를 만들어 줍니다.

10살 이상 고양이의 70% 이상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전체 고양이의 네 마리 중 한 마리 이상은 현재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관절염 치료에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보호자의 관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References
1. Cross-sectional study of the prevalence and clinical features of osteoarthritis in 100 cats : 2011, L.I.Slingerland, H.A.W.Hazewinkel, B.P.MeijerPh.Picavetb, G.Voorhout. 2. Retrospective Radiographic Study of Degenerative Joint Disease in Cats: Prevalence Based on Orthogonal Radiographs : 2020, Taro Kimura1, Sayaka Kimura1, Junichi Okada1, Sayaka Suzuki1 and Taku Kitaaka2* 3. Veterinary Radiology & Ultrasound, Vol 40, No. 4, 1999, pp 460-464. 4.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07; 8(3): 307-309. 4. AAHA/AAFP Pain Management Guidelines (updated 2015)

울해도 "관절염" 안녕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베링거인겔하임 반려동물 사업팀에서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울해도안녕'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이 캠페인은 점점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양육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보호자들을 위하여 고양이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한국 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보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재방문율을 높이기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입니다.

2021년에는 고양이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백신 접종이 아니라 꾸준한 접종을 위해 백신 재접종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고양이의 관절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이 고양이 관절염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원장님들께 질문하는 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진행된 캠페인은 나이 든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개에 비해 관절염 발생률이 높지만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국내 환경을 반영하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관절염은 나이에 따라 40~90%의 고양이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양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만성 신장병(CKD)이나 구내염,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비해서도 훨씬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며 손상된 관절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면

고양이의 활동량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활동량 감소는 근육 감소로 이어지고, 감소한 근육으로 관절에 더 큰 부하가 주어지면서 관절 손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조기에 포착해 진행을 늦춰야 하고 그러려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울해도안녕" 캠페인은 리플렛과 홈페이지를 통해 '집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테스트에 참여한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관절 건강에 관심을 두고 고양이의 관절염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관절 건강에 관한 보호자 질문을 수집,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수의사들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병원 방문 유도과 메타캠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총조회수 292,379회, 인스타그램 노출 수 11,168회 등 고양이 보호자 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캠페인 및 메타캠에 대해서 소개한 윤샘의 마이펫 상담소는 유튜브 본 동영상 11,000뷰, 쇼츠는 67,000뷰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댓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된 "울해도안녕" 캠페인은 고양이의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병원 방문율을 늘리고 정확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고양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캠페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 신호

고양이 관절염 예방의 시작은 바로 보호자의 관심입니다.
지금 바로 관절염 신호를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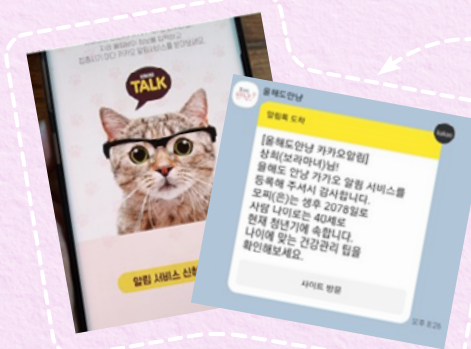
2021년 울해도 안녕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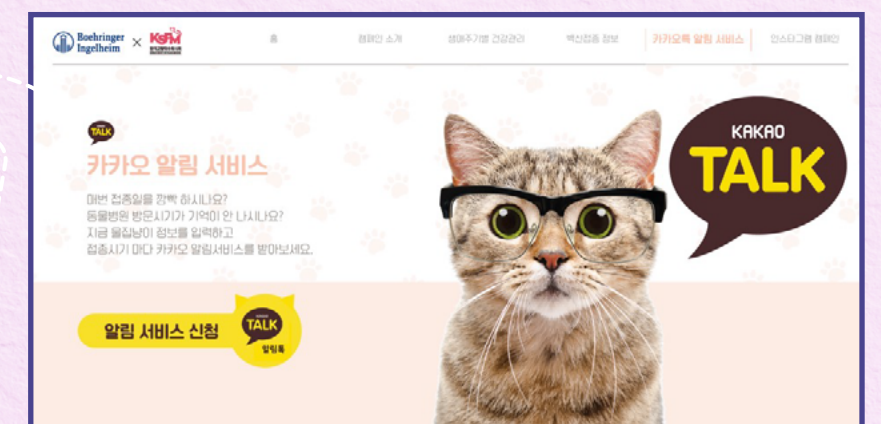
울해도 안녕 캠페인 영상



울해도 안녕 캠페인 웹사이트 오프라인 홍보물 신청 페이지



▶ 카카오 알림 서비스 이미지



울해도 안녕 카카오 알림 서비스



울해도 안녕 인스타그램 스티커



▶ 인스타그램 스티커 게시물

2022년 올해도 안녕 캠페인



LOGO & CHARACTER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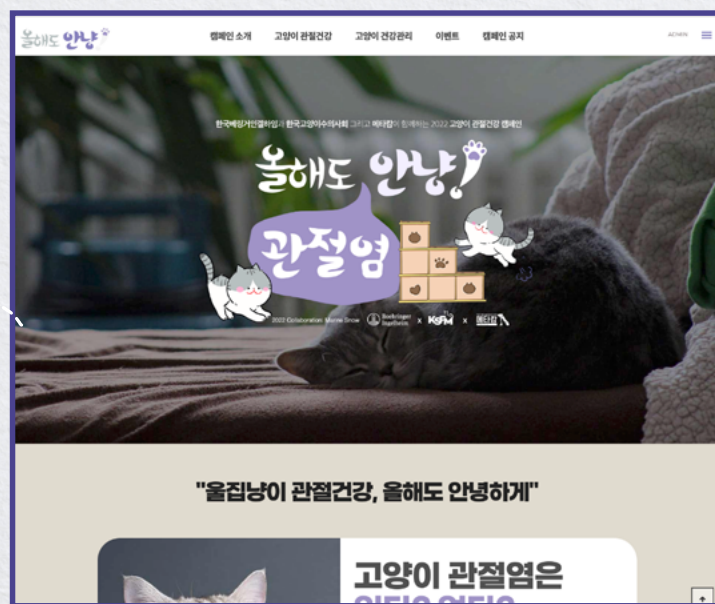
올해도 안녕 관절염 영상



▶ 올해도 안녕 캐릭터를 적용한 이벤트 사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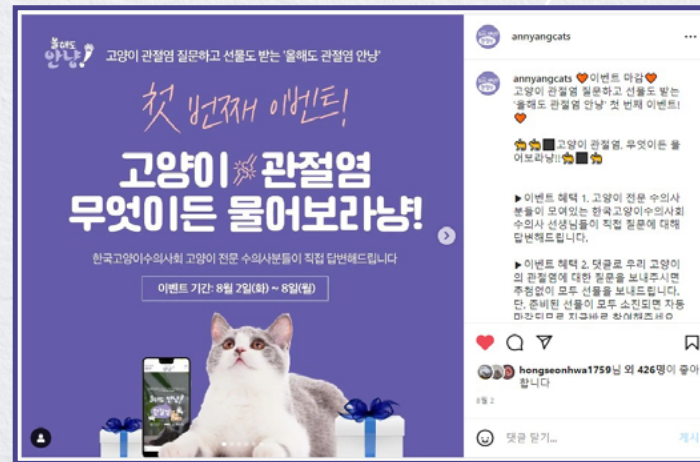
▶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이벤트 제공



올해도 안녕 '웹사이트' 개설



올해도 안녕 '카카오톡 채널' 개설



올해도 안녕 관절염 홍보를 위한 첫 번째 이벤트



올해도 안녕 관절염 홍보를 위한 두 번째 이벤트



▶ 관절염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사은품 증정



올해도 안녕 관절염 홍보리플렛

▶ 올해도 안녕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벤트 및 홍보활동

▶ 이벤트로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질문을 받아 KSFM 수의사들이 질문에 답하는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youtube 업로드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고양이 관절염'에 대하여 고양이수의사회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24시 넬 동물의료센터 **엄태흠** 원장님



**고양이가 점프를 자주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관절에 괜찮을까요?
사냥 놀이 중에 점프하면서 잡는 걸 좋아하는데 관절에 무리가진 않을까요?**

아주 활발한 친구와 함께 지내고 계시군요! 캣타워나 탁자 위 같은 수직공간으로 점프 하며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고양이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사람이 뛰어 다니는 것이나 점프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사람이 관절염이 생길 것을 걱정해서 뛰거나 점프하는 걸 제한하지 않는 것처럼, 사냥놀이나 수직운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니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고양이 관절염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사람은 다리 통증 호소를 하는 데 냇이들은 어떨때 아프다고 느낄수 있는지) 그리고 관절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언제부터 복용 해야 하는건지? 피해야할 자세나 행동도 궁금해요. 이제 점점 나이들면 노화가 올건제 사람처럼 퇴행성 관절염에도 걸리는걸까요?

고양이들은 개와 사람처럼 통증을 표현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오히려 아픈 것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양이처럼 무리를 짓지 않는 동물의 경우, 다리를 절거나 소리를 내어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주변의 포식자들과나 경쟁자들에게 나의 약점을 알려줄 뿐이지, 도움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몇몇 신호를 알아차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에 비해서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구석진 장소에 자주 숨어있습니다.
- 계단을 오르거나 캣타워에 점프할 때 오랫동안 쳐다만 보고 있거나 주저하는 동작을 보입니다.
- 그루밍을 자주 하지 못해 털이 뭉치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픈 관절을 과도하게 그루밍 해서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상하기도 합니다.
- 스크래처를 잘 사용하지 못해 발톱이 과도하게 길거나 두껍게 자랍니다.
- 신경질적으로 성격이 변하거나 아픈 부위 주변을 쓰다듬는 것 또한 싫어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위에서 확인한 증상들은 관절염이 아닌 다른 전신질환이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위의 증상들을 보이며, 그 원인이 관절염 이외의 다른 질환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약 복용을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고양이가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 관절보조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벌써 다리를 절뚝 거리고 한눈에도 불편해 보이는 경우에는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거나, 골절 등 다른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많으니 고양이의 작은 신호를 잘 알아채고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고양이도 사람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며 얼굴이 마모 되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고양이에게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실제로 고양이에게 관절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숨기려고 하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선천적인 관절 기형, 외상, 노령성으로 인한 관절 장애가 노령묘의 70%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몇살때부터 관절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노화에 따른 관절염은 동물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고양이는 유연한데 관절염이 없지 않나요? 라고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고양이라고 관절염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묘생에서 노령묘라고 부를 수 있는 만 10세부터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양이가 70% 이상이라는 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10세 이후부터는 관절염을 포함한 다른 건강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려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많이들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 메인쿤 같은 유전적 관절질환의 소인을 가진 품종묘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도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의 경우는 성장이 끝나는 1~2세부터도 관절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묘가 되고 나서 주기적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관절염의 예방법과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관절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집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 중 중요한 요인을 뽑아보자면 단연 체중입니다. 뼈와 관절이 지탱해야 하는 무게가 늘어나서 생기는 물리적인 부하는 당연히 관절에 부담이

되고, 과도한 체내 지방이 만들어내는 염증물질은 관절염의 심화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집 고양이는 조금 통통하고 귀여운 뿐이지 비만은 아닌거야! 라고 저도 늘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집 고양이를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글에 'cat body condition score' 를 검색하셔서 우리집 고양이의 체형과 비교해보세요!

체중 조절에 추가적으로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초록잎 혼합 등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증상이 심한 고양이는 병원에서 진통소염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양이 관절염에 홈케어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양이가 편안해하고 관절염에 부담이 적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장소에는 폭신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얇은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주세요. 고양이가 뛰어오를때는 발톱을 박아 넣어 안정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고 내려올때는 관절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양이가 좋아하는 높은 수직공간으로 이동할 때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를 만들어 줍니다.**
- 너무 길지 않게 발톱을 관리해줍니다. 특히 다리가 아픈 고양이는 발톱관리를 스스로 하는 것을 어려워 하니 도움이 손길을 내어주세요.
- 비만은 관절의 적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세요. 고양이를 운동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해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고양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를 놓아 편히 쉬게 해주세요.

관절염도 종류가 따로 나뉘져 있을까요?

관절염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발병 부위나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르지만, 고양이에서는 원인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골관절염,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 인한 감염성 관절염 및 면역매개성 관절염의 3가지가 있겠네요.

골관절염의 경우 나이가 들어 얼굴이 마모가 되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대부분의 고양이 관절염이 이에 속합니다. 사람에서는 감염성 관절염은 매우 드물며 일차적인 면역매개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많지만 고양이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나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등이 감염되어 생기는 감염성 관절 질환이 일차적인 면역매개성 질환보다 흔한 편입니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아 보세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마사지 방법이 궁금해요!

관절염이 있는 고양이를 억지로 운동시키는 것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복약이나 영양제로 통증을 완화시켜준 이후에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힘든 움직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음식이나 물을 바닥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장실 또한 턱이 너무 높거나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덮개가 있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자주 만지거나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통증반응을 유발하여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 보다는 부드러운 빗으로 온몸의 털을 그루밍 해주거나 얼굴 주변을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호자와 고양이 간의 긍정적인 연결을 강화해보세요!

고양이가 비만이 되면 관절염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러면 매트를 깔아줘야 하나요?

비만과 관절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염 뿐만 아니라 당뇨병 등 전신 질환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집 고양이가 통통하다면 관절염 보조제, 영양제, 몸에 좋은 사료 등 무언가 더 먹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덜 먹일지 고민해보세요!

점프나 착지를 자주 하는 공간에 미끄러지지 않고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주시면 고양이가 미끄러지지 않으며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실ON 동물의료센터 **최혜현** 원장님



뒷다리 쪽을 만지면 유독 싫어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관절이 안좋은것인지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발을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개개의 기질 및 성격상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독 싫어할 만한 상황(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질병에 의한 통증일 텐데요. 이러한 통증에 의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관리를 통해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해소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독 특정 부분을 만졌을 때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동물병원에 내원해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주목할 부분은 그러한 반응이 재현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재현성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관절염으로 수술한 아이들은 수직공간 움직임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관절염으로 인해 수술적 케어를 받는 아이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일 텐데요. 수직공간으로 움직이는 경우 정확한 착지가 어려워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특정 관절에 하중이 많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행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수직 운동을 백퍼센트 컨트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수평공간으로 구성해 최대한 수평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높은 곳에 오르려 할 때에도 한번에 고양이 키 이상의 높이를 오르게 하기 보다는 아이가 편하게 딛고 오를 수 있는 step 또는 경사로를 주변에 거치 한다면 고양이들도 좀더 이동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편안함을 느끼고 주변 상황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어, 높은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낮은 공간에서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하고 독립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고양이의 수술 외 케어 방법이 궁금해요! 정기적 검진, 치료약, 식이 조절 등을 알려주세요

관절이 안 좋은 환자들을 케어할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관리를 통해 관절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가입니다. 약물적인 치료로는 경구제를 투약함으로써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과, 관절강내에 관절의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절주사를 투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점점 움직임이 적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식욕 마저도 저하되어 아이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통증관리를 통해 적절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이 움직일 경우 또다시 통증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움직임으로도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활 치료 및 재활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은 관절염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운동량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이 지시되는 환자의 경우 체중 감량을 위한 처방식이를 추천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체중감량은 또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안 좋은 고양이 케어 방법이 궁금해요! 마사지, 레이저 치료 등이 도움이 될까요?

관절이 안 좋은 고양이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활을 통해 관절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재활 장비에 의한 치료와 운동을 통한 치료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관절내 염증산물을 제거하고, 관절의 건강한 재생을 도와줄 수 있으며 통증을 크게 경감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침 치료 및 NMES(근전도치료)와 같은 재활 치료도 근긴장도를 완화해 통증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근육의 자극을 통해 재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케어는 아픈 부위 주변부 근육의 긴장도 완화를 위해 부드럽게 어루만지거나 약간의 힘을 가해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초기에 환자가 통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고양이들은 그로 인한 기억으로 인해, 이후 재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사지는 주치의와 상의 후 케어해 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절염과 혼동하기 쉬운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개해주세요 (ex. 갑자기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이 있을 때 관절염일수도 있지만 다른 신경질환일수도 있다.)

다리를 불편해하는 경우를 백퍼센트 고양이 관절염으로 단정지를 수만은 없습니다. 고양이도 신경계 이상에 의한 보행이상 및 통증(디스크, 신경염, 종양, 뇌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질환의 경우 질환 특색에 맞는 치료가 지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지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심한 통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야 관절염을 확인할 수 있나요? 관절염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들을 어느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관절염은 관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검사 - 엑스레이, 초음파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액 검사가 지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절염도 그 원인에 따라 재검사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행속도 확인을 위해 진단 이후 첫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이후 상황에 따라 6개월~1년 이내 정기적인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진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조이고양이병원x조이강아지병원 박지희 수의사

코숏 두 마리와 동거중인 집사입니다~ 벌써 11살이 넘었네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높은 곳에서 내려올때 간혹 멈칫하는 게 보여서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
다. 혹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던지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관절에 좋은 '초록잎홍합'을 먹이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간혹 멈칫하는 증상이 있는 11살의 고양이이군요. 아직 병원에서 이에 관련된 진료를 받아보시진 않은 듯 하시네요. 멈칫하는 증상이 나이와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처럼 보이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근육량 감소, 심장 인대의 손상,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신부전과 관련된 고혈압 문제로 인한 시력 저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엄청 걱정했는데 내성 발톱 같은 단순한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먼저 병원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검사를 통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진을 받는다면 사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질병 정도와 통증 정도에 따라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관절 연골의 구성 요소 중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프로테오글리칸을 합성하는 원료들입니다. 즉 콜라겐의 합성을 조절하고, 분해를 억제하며, 일정 정도 항염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epa/dha를 포함한 오메가3 오일 역시 항염 효과가 뛰어난데요, 초록잎 홍합은 이 성분들에 추가하여 ETA라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지방산은 비스테로이드계열 소염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초록잎홍합이 사람과 동물의 관절영양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사람용 영양제에는 반려묘들에게 해가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양이 전용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11살 3개월 남자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왼쪽 앞다리 골성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 건강검진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상태라고 하셨구요. 의사선생님께서서는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면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고양이는 아파도 잘 숨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쓰여요. 혹시 제가 아픔을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아닌가해서요. 몸무게는 4.6kg이고 당뇨가 있어 5년째 인슐린 관리 중입니다. 관절 영양제를 먹이면 골성변화진행을 좀 더 늦출 수 있을까요? 혹시 영양제가 당뇨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5년째 인슐린으로 당뇨를 관리 중인 11살 고양이이군요. 보호자님이 고양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고, 애쓰고 계실지 먼저 칭찬과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고양이가 아픈데 보호자님이 모르고 있는 걸까봐 걱정하는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먼저, 우리 고양이의 관절이 아픈 건지 알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예전처럼 캣타워의 제일 높은 곳이나 식탁/냉장고같은 높은 곳에 잘 올라가는지, 한번에 점프하거나 뛰어내리는 높이가 예전에 비해

낮아지지는 않았을지, 유난히 한 부위를만 그루밍 하거나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있는지, 왼쪽 다리를 덜 쓰고 오른쪽 다리를 많이쓰는지와 같은 점을 유심히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방사선 상에서 관절의 변화가 진단 되었다면, 그 부위의 가동성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만성적인 둔한 통증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절 영양제를 꾸준히 먹이시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검진 상에서 당뇨 외에 다른 질환이 없었다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 3 오일 복용이 관절 연골의 보호와 항염 효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식을 하고 있다면, 영양제의 제형 중 츄어블을 선택하기 보다는 파우더제형이 담긴 캡슐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오랜 당뇨는 췌장염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경우 소화 불량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용법과 용량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췌장의 만성적인 변화나 췌장염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관절염과 췌장염에 효과가 있는 줄기 세포 치료도 아이에게 지시 가능한 치료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두 살이 되는데 관절염은 보통 몇 살에 올까요?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면 될까요? 미리 영양제를 급여하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는것을 미룰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었는데 미리 급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들어서요 ㅠㅠ

아직 젊은 나이의 고양이인데, 보호자님께서 벌써 관절염까지 걱정이 많으시군요. 어떤 질병을 영양제만으로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고양이의 노년기까지 미리 대비해주고 싶은 보호자님의 다소 조급한 마음이 느껴져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품종과 외상 병력에 대한 설명이 없기는 하지만, 스코티쉬 폴드나 메인쿤과 같이 품종 소인이 있는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2살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붓고 열나고 빨갛고,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기는 하나, 몸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이유로 염증이 생긴다면 관절의 염증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7살 이하의 나이의 고양이들은 피부를 포함한 신체 장기들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염증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관절 건강까지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비만입니다.

과도한 지방 조직은 체내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시키는 과정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요즘 집냥이들은, 비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디가 아픈가 싶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통통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 대에는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식습관을 형성해주시고 운동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최고의 관절 건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영양소를 추천 드리자면, 물과 오메가 오일입니다.



'고양이 관절염' 좋은 치료방법은? 논문으로 확인하는 메타캄의 효과

수술 전 후 메타캄®(멜록시캄) 효능

논문 1

Efficacy and safety of 3 versus 5 days of meloxicam as an analgesic for feline onychectomy and sterilization



Can Vet J. 2012 Mar; 53(3): 257-264.

PMCID: PMC3280777

PMID: 22942440

Language: English | French

Efficacy and safety of 3 versus 5 days of meloxicam as an analgesic for feline onychectomy and sterilization

Walt Ingwersen, Ronald Fox, Gail Cunningham, and Martha Win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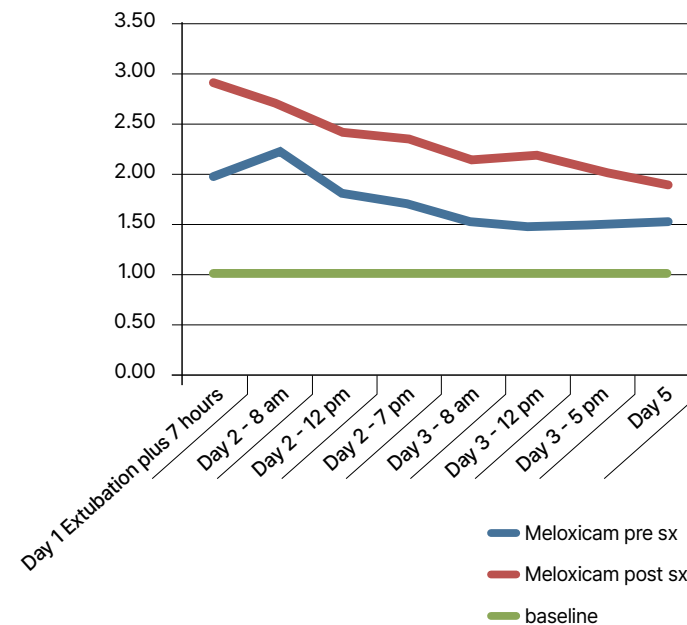
Author Information Copyright and License Information Disclaimer

This article has been cited by other articles in PMC.

Abstract

Go to

Three- or 5-day courses of meloxicam [0.2 mg/kg body weight (BW) subcutaneously pre- or postoperatively on Day 1 followed by 0.05 mg/kg BW, PO per day thereafter] were assessed for analgesic efficacy and safety in 50 client-owned cats undergoing onychectomy and sterilization. Primary outcome parameters were analgesia score, gait/lameness score, and need for rescue analgesia assessed at times 0, 1, 4, 7, 24, 28, 35, 48, 52, 57 hours and on Day 5. Packed cell volume/total solids and serum biochemistry were assessed at time 0 and Days 3 and 5.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fficacy and safety parameters regardless of the treatment protocol employed and no cat required rescue analgesia. The patients that received meloxicam preoperatively had statistically better gait/lameness scores than those that received meloxicam postoperatively, supporting the principle of preemptive analgesia.



고양이 OHE 수술 후 메타캠 사용

Method

80마리의 암컷 고양이를 수술 전 멜록시캄 (0.3mg/kg)과 카프로펜(4mg/kg) 사용하고 난소자궁 절제술 수술을 시행함.
수술 후 20시간 동안 통증, 진정제에 대한 시각적 척도, 혈청 생화학(요소, 크레아티닌, ALT, AST 등)을 추적

Results

심장박동수, 호흡률, 체온, 수술 전 후 혈청 생화학 검사
수술 후 통증 점수 등 두 약의 차이가 없이 진통제로 사용

Discussion

고양이 자궁절제술 이후 메타캠 사용으로 carprofen과 유사한 진통 효과를 보임

논문 2 Comparison between meloxicam and carprofen for postoperative analgesia after feline ovariohysterect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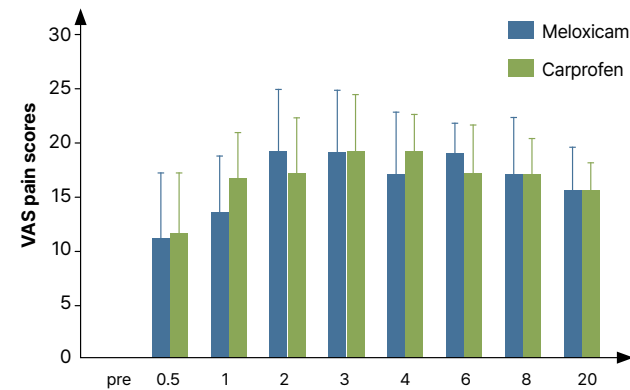


Comparison between meloxicam and carprofen for postoperative analgesia after feline ovariohysterectomy

L. S. Slingsby, A. E. Watterman-Pearson

First published: 10 February 2006 | <https://doi.org/10.1111/j.1748-5827.2002.tb00074.x> | Citations: 72

Full Text @ BI



메타캠의 고양이 관절염에 관한 장기사용의 효과 및 안전성, 기호도 평가

Method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40마리의 고양이들은 평균 치료기간 5.8개월동안 매일 한 번 멜록시캄 (메타캠)을 0.01~0.03mg/kg의 용량으로 처방

Results

2마리(4%) 고양이에서 나타난 부작용인 위장장애만 나타나고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음
연구한 고양이들에서 신장기능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었음

Disc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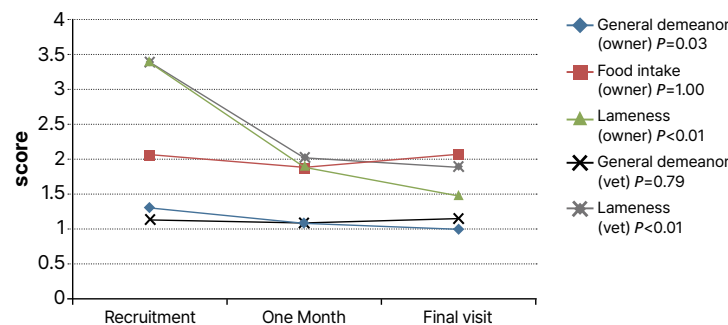
구강용 메타캠은 고양이 골관절염 유지 용량 (0.01~0.03mg/kg)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음

논문 3 Long-term safety, efficacy and palatability of oral meloxicam at 0.01–0.03mg/kg for treatment of osteoarthritic pain in cats



Long-term safety, efficacy and palatability of oral meloxicam at 0.01–0.03 mg/kg for treatment of osteoarthritic pain in cats

Marcus N Gunew BVSc, BSc(Vet), MACVSc*, Victor H Menrath BAgr, BVSc, FACVSc, Rhett D Marshall BVSc, MACVSc



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 신호

고양이 4마리 중 1마리는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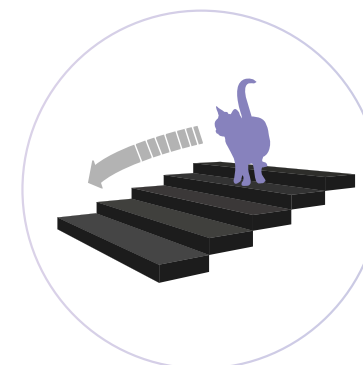
1 점프를 힘들어하거나 머뭇거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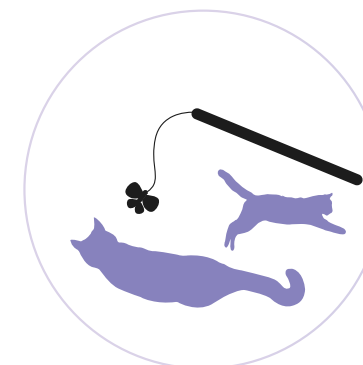
2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를 힘들어하나요?



3 계단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나요?



4 계단 내려오는 것을 힘들어하나요?



5 전과 달리 잘 놀지 않고 잠이 많이 늘었나요?



6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나요?



올해도 안녕 캠페인은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한국베터링저널협업, 메타캠이 함께하는 고양이 건강관리 캠페인입니다.
2022년에는 고양이 관절 건강을 위한 '올해도 관절염 안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References

- Godfrey(2005) Journal of Small Animal Practice 46,425-429.
- Clark et al.(2005) Veterinary Record 157,793-799.



올해도안녕.co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수술후 / 급만성 통증 / 관절염(DJD)에는 쉽고 빠른 메타캠® 현탁액 0.5mg 고양이용

